주체사상은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주체사상은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조선 · 평양
외국문출판사
주체 103(2014)년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정확히 밝혀주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정치학설입니다.》

김 정 일

위대한 사상을 따르는 인류의 마음을 담아

인류력사는 사상의 력사이다. 인간은 출현한 첫 기슭에서부터 각이한 사상을 낳았고 그것이 이끄는대로 자기 운명의 페지를 력사에 새겨왔다.

너무도 수난많은 운명의 력사였다.

수수천년 이러저러한 사상들이 가리킨것은 노예의 사슬과 봉건의 멍에, 자본의 철쇄속에 묻힌 숙명이였다.

맑스주의의 출현은 하나의 전환점이였으나 그것은 자본의 철쇄를 마스고 숙명의 문을 닫았을뿐 참된 운명개척의 문을 활짝 열어놓지 못하였다.

인류는 참된 운명개척의 앞길을 밝혀줄 사상, 운명의 빛줄기를 찾아 애타게 헤매였다.

밤이 지새면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온다.

20 세기초 그처럼 오랜 세월 암중모색하면서도 찾을수 없었던 구원의 해빛이 인류에게 비쳐왔다. 굴종과 수난으로 얼룩진 인간의 운명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적운명을 밝혀주는 주체사상이 출현하였던것이다.

그것은 새 력사의 탄생이였다. 백만년 인류사에 처음으로 인간이 무한한 존엄과 긍지에 사는 감격스런 력사의 시작이였고 무참히 짓밟히고 억눌리였던 인민이 력사의 주인으로 되는 자주와 창조의 새 시대의 출발이였다.

주체사상은 인간존중의 사상이며 철저한 자주의 철학

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운명의 주인은 사람자신이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사람자신에게 있다는 절대의 진리를 천명하였다.

자주적진리의 힘있는 종소리로 수천년간 숙명의 잠에 들어있던 인류를 완전히 깨우치고 운명개척의 근본방도를 명시한 인간해방의 영원한 기치가 바로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의 중심에는 인민이 있다.

주체사상은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인민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력사의 주체로 내세우고 그 인민에 의한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사회력사적운동의 진면모를 완전무결하게 해명하였다.

인민은 어느 시대, 어느 때에나 있었지만 인민을 력사의 주체로 내세우고 그 역할을 다하게 한 사상은 오직 주체사상밖에 없다.

주체사상에는 인민이 실패와 우여곡절을 모르고 운명개척의 곧바른 길로 나아갈수 있는 비결이 있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 창조적방법을 구현하며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것은 주체사상이 밝힌 새 사회건설의 지도적원칙이다. 이 원칙이 가져다주는것은 사회적인간의 본성에 맞는 자연과 사회와 인간의 개조발전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인 발전과 번영이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사회제도도 다르고 생활방식도 제가끔이지만 미래에로의 곧바른 방향을 그어주는 옳바른 라침판은 주체사상뿐임을 력사가 체험하였고 현실이 보여주고있다.

주체사상이자 선군사상이다.

선군사상은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도, 평화와 부강번영도 있다는 귀중한 진리이며 그 진리를 사회발전에 구현하는 현실적방도이다.

인류력사에 전쟁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자기의 위력한 군사적힘을 가지지 못한 인민은 나라와 민족은 그 어느 시기에나 번영은 고사하고 자기 생존권조차 지킬수 없었다.

바로 선군사상이 온갖 지배주의,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자주성에 대한 인류의 념원을 실현할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 제국주의의 힘의 정책이 란무하는 현세계에서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생활력은 다름아닌 선군사상에 의하여 대표된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사상이 인류의 리상향을 부르고있다. 사회주의강성국가는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이다

강국건설은 대대손손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살아온 인류의 꿈이고 변함없는 리상이다.

어떤 나라가 강국인가. 력사상에는 인구수가 많거나 령

토가 큰것으로 해서, 경제발전수준이 높거나 강한 군사력을 가진것으로 해서 대국, 강국으로 불리워진 나라들이 있었지만 결코 인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하였다.

나라의 근본은 인민이요, 따라서 그 인민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시켜줄수 있는 국력이야말로 진짜 강국의 모습이다.

사회주의에 토대하여 사상,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강국의 면모를 갖추고 인민의 행복을 현실로 펼쳐주는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모습에 인류의 력사적념원이 담겨져있고 밝은 미래가 그려져있다.
참으로 주체사상은 세상만물에 생명을 주는 해빛과도 같이 력사를 두고 세기를 두고 인간이 애타게 찾고 찾았던 참된 삶의 자양분, 태양의 찬란한 빛발이다.

태양은 동쪽에서 솟는다.

오랜 세월 그 어느 사상가도 위인도 줄수 없었던 주체의 빛발을 인류에게 안겨준 태양은 동방조선에서 솟아올랐다.

만경대의 초가집에서 탄생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만이 아닌 전인류를 위하여 주체사상을 내놓으시였다.

태양의 위업을 이을 력사적사명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인민이라는 토양에 씨를 뿌리고 자래우신 주체사상을 무성한 숲으로 가꾸시였다.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실천을 낳는다.

주체사상은 창시된 때로부터 한세기도 못되는 짧은 력사적기간에 인류가 장장 수천년 그토록 바라면서도 이룰수 없었던 기적을 이룩하였다.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짓눌러온 암흑과 절망, 지배와 예속을 불사르고 광명과 희망, 자주와 독립의 새 력사가 펼쳐졌다. 세기를 두고 억눌려온 인민을 일떠세워 그 위력으로 전진하는 새 력사, 새 시대를 개척하고 이끌어온 여기에 주체사상의 위대성이 있다.

오늘 주체사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시대적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되여나가고있다.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복잡다단한 현세계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명쾌한 해답을 주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주체사상은 변함없는 태양의 빛발로 세계를 밝히고 21 세기를 자주의 한길로 인도하고있다.

주체사상이 있는 한 미래는 인류자신에게 있다.

진리는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되는 법이다.

주체사상은 막을수 없는 진리의 힘으로 수억만 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내렸고 5 대륙에 찬란히 빛발쳐가고있다.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전세계에 조직되여 활발히 움직이고 세계의 수많은 정당들이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따라배우고있다.

주체사상에 대한 지지와 신봉의 열풍이 21 세기를 뜨겁

게 달구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정계, 사회계, 학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현실에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자주의 목소리는 이 행성 어디서나 울려나오고 주체의 기치는 세계의 그 어디서나 높이 휘날리고있다.

지구상에는 70억이 넘는 인류가 살고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사상과 신앙도 다르고 사회제도도 다르며 문화도 다르지만 참된 운명을 바라고 위대한 사상을 따르려는 인민의 지향은 한결같다.

위대한 사상을 따르는 인류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사상 총서중 《주체사상 원리해설》(전 5권)을 내놓는다.

이 도서가 세계의 수많은 주체사상신봉자들과 진보적 인류에게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를 깊이 새겨주고 밝은 미래에 대한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며 세계자주화위업에로 향한 투지를 북돋아주기 바란다.

차　　례

《철학적세계관의 근본사명은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는데 있습니다.》

김 정 일

1. 운명과 세계관

우리는 먼저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대하여 보게 된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과 사회력사관, 지도적원칙으로 이루어져있다.

여기에서 사람중심의 세계관은 핵심적이며 기초적인 위치를 차지하고있다고 볼수 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것처럼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를 인식하자면 우선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파악해야 한다.

혹시 어떤 사람은 세계관을 모르고도 사는데 또 생활에 직접적이고 필요한 지식이 많은데 하필이면 지루하게 세계관을 론할 필요가 있는가고 서둘러 책을 덮을수도 있는데 잠간 이런것을 생각해보자.

세계관은 누구에게나 있다.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하여 생각한다는것은 벌써 일정한 세계관을 가졌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생활하고 자기 육체적생명을 이어가자면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물질적부가 필요한것처럼 참된 삶을 위해서는 옳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것이다.

이야기를 계속해나가면서 알게 되겠지만 사람중심의 세계관은 운명의 지배자, 개척자가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원리,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견해, 사람을 중심으로

밝힌 세계에 대한 견해와 관점과 립장 등을 주고있다.

그러면 세계관이란 무엇이며 참된 삶의 길을 밝혀주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은 과연 어떤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자.

1) 인생의 등대

등대는 인류가 바다로 진출하면서부터 배의 항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요소, 아니 배길을 밝혀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바로 세계관을 비유해서 본다면 등대에 비길수 있으리라. 낮에는 탑의 모양과 색갈로, 밤에는 등불로, 안개낀 때에는 무선전파신호와 소리신호로 자기 위치를 알리는 등대처럼 옳바른 세계관은 참된 삶의 진로를 밝혀주는 인생의 등대이다.

그러면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이 세계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떤 립장을 가지고 대하는가 하는것이 곧 세계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세계관을 가지고있다.

세계관은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견해, 관점과 립장으로서 여기에는 종교적세계관과 철학적세계관이 있다. 종

교적세계관이 신앙에 기초한 세계관이라면 철학적세계관은 론리적으로 체계화된 세계관이다.

세계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상을 가져보기로 하자.

사람은 누구를 물론하고 세계 즉 자연과 사회와 관계를 가지고 산다. 따라서 사람은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무관심할수 없다. 반드시 자연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에 대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된다. 실례로 《세계화》를 보자.

한쪽에서는 그에 대하여 요란히 광고하고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그 후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가고있다. 한 나라 정부나 이러저러한 단체들뿐 아니라 개별적사람들까지 《세계화》에 대한 어떤 견해이든 가지고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계의 개별적인 사물현상들을 보고 대하는 하나하나의 견해와 태도를 보면 거기에는 그 어떤 공통성이 있다. 해를 보고 신비하게 생각한 원시인들은 번개나 우뢰도 신비스럽게 생각하였으며 그에 의한 재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신비스러운 존재에게 빌었다.

이를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 모든 사물현상들을 신비하게 보는 보다 일반적인 견해와 태도가 있음을 알수 있을것이다.

즉 사람들은 사물현상들의 총체인 세계를 통털어보는 보다 일반적인 견해와 태도를 가지고있으며 개별적인 사

물현상을 보는 하나하나의 견해와 태도가 그와 련결되여 있다.

왜 그런가. 자연과 사회의 개개의 사물현상들이 제각기 고립되여있는것이 아니라 서로 련관되여있고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있기때문이다. 개별적인 사물현상들이 존재할뿐아니라 그것들의 전일적인 체계로서의 전체적인 세계가 현실적으로 있다.

례를 들면 소나무는 개별적인 하나의 사물이지만 그것은 고립되여있는것이 아니라 다른 나무들과 그리고 자연과 사회의 다른 요소들과 련관되여 존재하며 나아가서 모든 자연적, 사회적요소들이 하나로 통일되여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룬다.

그런데 사람의 인식은 현실세계의 반영인것만큼 사람은 개별적인 사물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와 태도뿐아니라 반드시 세계를 전체적으로 보고 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견해와 태도를 가지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관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로서의 세계가 어떻게 되여있고 어떻게 변화발전하는가, 사람은 어떤 존재이며 세계에서 어떤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고있는가,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는데서 어떤 관점과 립장을 가질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통털어 세계관이라고 한다.

그러면 세계관은 삶의 진로, 운명개척의 앞길을 어떻게

밝혀주는가.

원래 사람의 생활과 운명개척에서의 전진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서양철학의 발원지로 알려진 고대그리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물은 만물의 시원이다.》는 명제를 내놓은 철학자 탈레스(B.C. 7 세기~B.C. 6 세기)가 직심스럽게 학문을 탐구하자 사람들속에서 그를 비웃거나 질투하는자들이 나타났다.

어느 한 상인은 그가 빈곤하게 사는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지식이 대단한 철학자라고들 하던데 그래 그 지식이 당신에게 뭘 가져다주었소? 돈이요? 아니면 빵?》라고 비웃었다. 그러자 탈레스는 《당신은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지식을 조롱하는것 같은데 그럼 후에 어떻게 되나 보기요.》라고 대답했다. 그는 풍부한 천문학지식과 수학, 농업지식을 리용하여 다음해 올리브농사가 대풍작일것이라고 판단하고 아주 눅은 값으로 온 성안의 올리브착유기를 몽땅 사들였다. 수확계절이 오자 그가 예견한대로 례년에 없던 올리브대풍작이 들었다. 급해맞은 사람들은 저마다 착유기를 찾아 그의 집으로 쓸어들었고 탈레스는 훨씬 비싼값으로 착유기를 내주어 약차한 돈을 벌었으며 사람들에게 지식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실물로 보여주었다는것이다.

지식은 광명이고 무한대한 힘이다. 우리가 사회적활동

을 통하여 자연에서 자기의 생활상요구에 필요한것을 얻어내려면 자연을 알고 사회를 알아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현상들은 각기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으며 자기의 법칙에 따라 변화발전한다. 그것을 모르고서는 낟알 한알, 실 한오리, 석탄 한 g 도 제대로 얻어낼수 없고 바로 리용할수도 없다.

특히 세계관이 중요하다. 얼핏 보면 세계관은 그 일반성때문에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사람의 활동과는 거리가 먼것같이 생각되지만 결코 그런것이 아니다.

세계관은 현실을 대하는 사람들의 립장과 태도를 규정하며 그들의 사고와 행동을 제약한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또 뭘 바라겠소.》라고 말한다고 하자. 이것은 삶의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의 표현인데 바로 이 견해의 밑바닥에는 사람을 단순히 생물학적존재로밖에 보지 않는 세계관적견해가 놓여있는것이다.

중국작가 로신의 작품 《아큐정전》에서 나오는 아큐는 항상 정신적으로 《적》을 《굴복》시킨다. 남에게 매를 맞고도 《난 아들놈에게 얻어맞은 셈이야. 요즘 세상은 정말 말이 아니라니.》하고는 승리한것처럼 의기양양해하며 도박에서 딴 돈을 빼앗기고 게다가 매까지 맞고도 자신의 뺨을 힘껏 갈기고는 복수를 했다고 만족해서 편안히 잠든다. 아큐의 이른바 《정신승리법》이란 결국 행, 불행

은 다 생각할탓이라는 주관주의적사고이고 행동인바 이것은 세계를 사람들의 의식의 산물이라고 보는 주관관념론적세계관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와 같이 세계관은 어디서 무엇을 하건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제약하게 된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있는 세계관에 기초해서 무엇이나 보고 판단하며 실천활동을 벌리는것이다.

그러면 왜 세계관이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의 기초에 놓이면서 그를 제약하는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현상은 자기의 고유한 특성과 측면들을 가지면서도 그 특성과 측면들을 관통하는 가장 일반적이며 본질적인 련관속에 존재하며 이 련관에 의하여 매 사물현상, 측면들의 발전법칙과 방향이 제약된다. 즉 개별적사물현상들의 운동변화는 전체로서의 세계를 관통하는 가장 일반적인 법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에서도 지적한것처럼 사람의 인식은 이러한 현실세계의 반영이니만큼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문제해결의 기초에는 항상 세계전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견해, 관점과 립장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것이 놓이게 되는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있는 세계관에 기초해서 다른 모든 사고와 행동의 목적과 방향, 그 기본내용을 정하고 활동하게 되는것이다.

더우기 세계관은 사람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담은 사상의식인것으로 하여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사람의 사고와 실천활동의 목적과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진보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사회발전을 위하여 사고하고 활동하며 반동적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착취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며 사회발전을 저애하는 방향으로 사고하고 활동한다. 요약해보건대 사람은 누구나 그 과학성과 수준은 어떠하든 이러저러한 세계관을 가지고있으며 반드시 그에 기초하여 모든 사고와 행동을 벌려나간다.

모든 진보적인 사상과 과학지식이 사람의 운명문제해결에 이바지하지만 개별과학들은 운명문제에 대한 포괄적이며 전일적인 해명을 주지 못하며 따라서 그것이 운명개척의 방도를 밝혀준다고 할수 없다.

철학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과학은 자연과 사회의 어느 한 부분이나 측면, 과정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거기에서 작용하는 필연적인 련관과 합법칙성을 밝힘으로써 사람들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하는것이다.

개별과학과는 달리 철학은 전체로서의 세계를 연구대상으로 하며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해명한다.

한편 철학의 사명은 단순히 세계를 해석하는데 있는것

이 아니라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데 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옳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사람은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함으로써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며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가자면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무기인 옳바른 철학적세계관을 소유하여야 한다.

그러면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사람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정하고 참된 삶을 위해 힘차게 전진할수 있는가를 계속하여 보기로 하자.

2) 참된 삶을 위한 세계관

로마의 바띠까노궁전에 가면 15~16 세기의 이딸리아화가 라파엘이 그린 유명한 벽화 《아테네학파》를 볼수 있다.

철학(철학이란 다름아닌 세계관을 주는 학문이다.)을 주제로 그린 이 그림에는 B.C. 4 세기 아테네의 철학자들을 비롯하여 각이한 력사적시기에 산 50 여명의 학자들이 그려져있다. 그림의 중심에는 바른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는 플라톤과 땅을 가리키고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상되여있다.

16 세기초에 창작된 이 그림은 우리에게 력사적으로 어떤 세계관들이 있었는가를 시사해주고있다. 그림에서 바른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는 플라톤의 형상은 관념론적세계관을 상징하고있고 땅을 가리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은 유물론적세계관을 상징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난날 세계관의 발전력사는 상반되는 두 철학조류인 유물론과 관념론, 변증법과 형이상학의 투쟁력사였습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사상사에는 각양각색의 세계관들이 많이 출현(이러한 사실자체는 세계관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이기도 하다)하였는데 그것들을 크게 관념론적세계관과 유물론적세계관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관념론적세계관은 세계를 《절대리념》, 《하느님》과 같은 사람밖의 정신적존재나 사람들의 주관적의식의 산물이라고 보는 세계관이다.

실례로 플라톤은 그 어디엔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가 있는데 현실세계는 그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세계관이 허황하다는것은 과학이 발전한 오늘에 이르러 명백히 증명된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주위세계를 제대로 볼수 없고 자기 운명을 바로 개척할수 없다는것은 더 론의할 여지가 없다.

유물론적세계관은 어떠한가.

유물론은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져있으며 의식은 물질이 사람들의 머리에 반영된것이라고 본다.

물론 유물론이라고 해서 다 같은것은 아니다. 력사적으로 보면 유물론은 크게 고대의 소박한 유물론으로부터 근대의 형이상학(형이상학이란 세계의 모든것이 고정불변하다고 보는 철학류파)적유물론을 거쳐 맑스주의변증법(변증법이란 세계의 모든것이 끊임없이 운동변화한다고 보는 철학류파)적유물론으로 발전해왔다.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유물론은 직관적이고 경험적인것으로서 일정하게 사람들의 운명개척에 진보적역할을 하기는 하였지만 사상령역, 나아가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관념론적세계관을 구축하지 못하였다.

특히 중세기에는 종교가 모든것을 지배하였다. 종교가 사람들의 정신을 사로잡고 운명을 숙명으로 설교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롱락하였다. 종교교리와 배치되는 그 어떠한 주장도 무자비한 탄압의 대상으로 되였다.

이딸리아의 학자인 죠르다노 부르노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의 적극적인 지지자라는 리유로 하여 1583 년에 카톨릭교회에 체포되여 근 7 년동안 가혹한 고문을 받던 끝에 종교재판에 의하여 화형당하였다.

그때로부터 200 년이 지난후 사람들은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 다음과 같은 비문을 새기였다.

《… 화형을 당한 그 장소에서 그가 내다본 그 세기로부터》

바로 죠르다노 부르노가 정의와 진리에 대한 신념을 안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굳게 믿었던 력사의 순간은 마침내 오고야 말았다.

19세기초에 맑스주의가 나왔던것이다.

맑스주의의 창시,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사조의 출현이 아니였다. 사상령역에서 인류에게 숙명을 강요하던 관념론과 신비주의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였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은 관념론의 외피를 쓰고있는 변증법(맑스의 표현에 의하면 《거꾸로 선 변증법》)의 성과와 당대 과학발전수준에 토대해서 변증법적유물론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져있으며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이 서로 련관되여있고 끊임없이 운동변화발전한다는것이다.

맑스주의세계관은 세계를 객관적인 현실그대로 반영한 과학적인 세계관으로서 력사의 발전과 사람들의 운명개척에 큰 영향을 주었다. 맑스주의에 의해 피착취근로대중은 종교적환상과 관념론적허구에서 벗어나 자기들의 불행이 팔자탓이나 하느님의 계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본가계급의 착취와 그것을 옹호하는 자본주의제도자체에 원인이 있다는것,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사는 길은 자본을 반대하여 투쟁하는데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대하게 하는 다시말하여 객관적물질세계의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바로 인식한데 기초하여 그에 맞게 행동할것을 가르치는 세계관이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만 해서는 자기 삶의 목적을 이룩할수 없고 행복을 찾을수 없다.

참된 삶을 개척하려면 객관적합법칙성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행동할뿐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해야 한다.

유물변증법적세계관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지는 못하는것이다. 더우기 그것은 사람의 운명개척의 앞길을 직접적으로 밝혀주는것은 아니다.

바로 사람의 운명개척의 앞길을 직접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주는것이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다.

사람중심의 세계관은 모든 세계관적문제들을 사람과 련관시켜 제기하고 풀어나가며 세계를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리용하면서 살며 발전해나가는 사람을 위주로 세계를 보고 대할것을 요구한다.

사람중심의 세계관은 사람들에게 운명개척의 진리를 직접적으로 가르쳐준다. 그것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세계에 대한 견해, 관점과 립장을 준다, 하여 사람들에게 삶의 주인된 자각을 심어주고 운명개척의 곧바른 앞길을 밝혀준다.

사람들에게 세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한 기초우에서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으로 삶을 가꾸고 행복을 마련해나갈수 있게 하는 견해, 태도를 주는것, 이것이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다.

이것은 객관세계를 무시하고 사람의 주관적욕망이나 념원을 일방적으로 내세우며 세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주관주의가 아니며 또 세계를 단순히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객관주의도 아니다.

또한 세계가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사람이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비과학적인 주장이 아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표상이 잘 떠오르지 않을수 있는데 이제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혔습니다.》

김 정 일

2. 운명개척의 근본리치

사람중심의 세계관이 사람들에게 밝혀주는 삶의 리치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운명의 주인은 누구이며 그것을 개척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운명의 주인은 사람자신이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사람자신에게 있다,

이것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 밝혀주는 운명개척의 근본리치이다. 사람들이 삶을 꾸려나가는데서는 이러저러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그 모든 문제들의 답이 이 하나의 명제에 집약되여있는것이다.

사람의 운명을 하나의 큰 배에 비유해보면 운명이라는 큰 배의 키를 잡고있는것도 사람이고 그 배의 노를 저어가는 사공도 다름아닌 사람자신인셈이다.

그러면 운명의 주인이 사람자신이며 그것을 개척하는 힘도 사람자신에게 있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1) 운명의 주인은 사람자신

고대그리스의 신화에는 《운명의 녀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올림프스산정의 높은 곳 구름우에 지은 화려한 황금궁전에는 여러 신들과 함께 운명의 근엄한 녀신들이 살고있다.

사람의 운명은 물론, 세상만물의 지배자인 제우스의 운명까지도 이들의 손에 쥐여져있다.

클로트라는 녀신은 사람의 생명의 실을 꼬는데 그 실이 끊어지면 사람의 생애도 끝난다. 그런가 하면 라케시스라는 녀신은 사람의 일생을 점치는 제비를 뽑으며 아프로포스라는 녀신은 언니신들이 사람의 일생으로 정해놓은것을 긴 두루마리종이우에 적어넣는데 여기에 한번 적히면 모면할수 없다.…

신화란 고대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이지만 《운명의 녀신》들에 대한 이야기에는 사람의 운명의 주재자에 대한 견해가 들어있다.

사람의 운명은 세계와의 관계에서 개척된다. 다시말하여 세계를 이루는 자연환경이나 사회적조건과의 호상작용을 통하여 사람의 운명이 개척된다. 여기로부터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는 주인이 사람자신인가 아니면 사람밖의 그 어떤 신비로운 존재나 주위환경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것이다.

신적인 존재를 사람의 운명의 지배자로 보는 견해는 고대 그리스신화에서뿐아니라 여러 종교적세계관들에서도 찾을수 있다.

과연 고대그리스신화나 종교에서 주장하는것처럼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는것이 신적인 존재인가.

그러한 견해들을 믿고있는 사람들에게는 유감스럽겠지만 명백히 그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경이적인 높이에 오른 오늘날에 와서 저 하늘끝 어딘가에 신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허황한 견해로 되였다.

운명의 주인은 그 무슨 《녀신》들이 아니라 사람자신이다.

사람은 자기 운명을 자신이 책임지고있으며 자기 의사대로 개척해나갈 권리를 가지고있다. 자기 삶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리해관계에 따라 이러저러한 운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과정을 설계하며 결심을 채택하면서 자기 발전의 끝없는 행로를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사람이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기때문이다. 사람이 산다는것은 주위의 사물현상들과 이러저러한 관계속에서 자기가 요구하는바를 이루어나간다는것인데 주위세계를 지배하는것이 사람이라면 사람의 운명의 주인은 사람

자신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것이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자.

사람은 세계의 주인, 자연과 사회의 지배자이다.

세계에는 다양한 물질적존재들이 있다. 그러나 주위세계를 지배하면서 사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다. 실례로 동물은 외부환경에 종속되여 자기 생존을 유지한다. 동물들은 자연환경에 순응하여야만 개체를 보존하고 후대를 남겨 종을 유지할수 있다. 초원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힘이 세서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고 살지만 자연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래서 먹이감이 없으면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고 죽고만다. 가물이 들어 강과 호수의 물이 마르면 동물들이 무리로 죽는 현상을 종종 보는데 이것은 동물이 주위세계를 지배하면서가 아니라 주위세계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살아나간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와는 달리 사람은 주위세계를 자기의 의사에 맞게 복무시키면서 살아간다.

사람은 우선 자연을 지배한다.

자연에 있는것을 자기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리용할뿐아니라 자연이 사람에게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극복하고 그것을 유리한 조건과 환경으로 전환시키면서 살아나간다. 사람은 제방을 쌓고 강을 다스려 홍수나 가물을 막고 전기도 일구며 지하자원을 캐내여 리용하고 야생동물들을 길들여 부리기도 한다. 또한 자연의 황폐화를 막고 산과

들에 온갖 유용한 동식물이 번성하도록 자연환경을 가꾸어나간다.

사람은 또한 사회의 주인이다.

사회자체가 사람이 만들어낸것이고 사람이 지배하는것이다.

물론 사람은 사회적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사람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볼 때 주동적이고 결정적인것은 사람에 의한 사회의 지배이다.

모든 사회적재부는 사람이 만들어내고 리용하는것이며 사람은 자기의 요구에 맞지 않는 사회제도를 바꾸거나 고쳐나간다. 노예사회가 봉건사회로, 봉건사회가 자본주의사회로 교체되고 마침내 착취와 억압을 종국적으로 청산한 사회주의가 출현한 력사적사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결국 신적인 존재도 바로 사람이 지배한다.

신화적인 이야기들자체가 사람자신이 꾸며낸것이다. 누구나 다 알고있는것이지만 고대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다름아닌 사람의 모양을 하고있으며 사람처럼 사랑을 하고 질투를 하며 싸우기도 하는가 하면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자식도 낳아 키운다. 이러저러한 종교리론에 그 주장을 만들어낸 사람 즉 창시자가 있다는 사실은 운명의 지배자로서의 신의 존재란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는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준다. 그런즉 신들에

의한 사람의 《운명주재》나 신들사이의 《사랑》과 《기쁨》 등 모든것을 사람이 지배한다고 볼수 있다.

이처럼 사람이 주위세계,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는것만큼 사람에게 지배되는 주위세계의 그 무엇이 사람의 운명의 주인으로 될수는 없다.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인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는것은 당연한것이다.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을 인식하는데서 우리가 명백히 해야 할 몇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는것을 형이상학적으로 리해해서는 안된다.

사람은 현재 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현상들을 다 지배하고있지 못하다. 뿐만아니라 사람이 지배하고있는 령역은 주위세계, 특히 무변광대한 자연의 령역에 비해볼 때 아주 보잘것없는것이라고도 할수 있다.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는것은 사람이 세계에 종속되여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는 위치에 서있으며 무한한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확대해나가는 리치를 두고 말하는것이다.

다음으로 사회도 사람이 만들었다는 말의 뜻을 사람들이 아무때나 이러저러한 사회제도를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다는것으로 리해해서는 안된다. 사회에는 엄연하게 사람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작용하는 객관적합법칙성이 있다. 사람은 사회발전의 객관적법칙을 옳게 인식하고 바로 리

용할 때에만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지배할수 있다. 사회도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것은 사람이 사회관계의 직접적담 당자라는 뜻이다.

또한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개인주의적립장에서 리해해서는 안된다.

어떤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자신이라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개인의 일신상문제해결에 귀착시켜 그릇되게 해석하고있다. 즉 자기 개인의 출세와 명예, 부귀영화는 오직 자기만의 노력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식으로…

개인의 리기적인 목적실현을 위한 이러한 견해는 주체사상의 원리와는 인연이 없다.

주체사상에서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우고있는 사람은 철학적범주이다.

다시 말하여 사회적, 집단적존재로서 자연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철학적으로 일반화된 개념이며 나아가서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담당자인 근로인민대중을 가리킨다.

주체사상에서 사람의 운명을 론할 때 그것은 자연과 사회를 자기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지배하기 위하여 투쟁해나가는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이며 그 운명의 전도가 근로대중자신에게 달려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구태여 개별적존재로서의 사람을 론한다면 그 개인은 근로대중이라는 사회적집단의 한 성원으로서만 의의를 가

진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운명의 주인은 사람자신이다.

2)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사람자신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이렇게 회고하시였다.

《소년회에 망라된 학생들가운데는 기독교신자들의 자녀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부모들의 종교적영향을 어떻게나 많이 받았는지 세상에 정말 <하느님>이 있다고까지 생각하였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아무리 <하느님>이 없고 종교를 믿는것이 어리석은짓이라고 말해주어도 소용이 없었다. 어느날 나는 우리의 영향을 받고있던 조선인소학교의 한 녀선생에게 부탁하여 종교를 믿는 학생들을 데리고 례배를 보러 가게 하였다. 그 녀선생은 나의 말대로 학생들을 데리고 례배당에 가서 온종일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아버지이시여, 배가 고픈데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리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떡이나 빵이 차례질리는 만무하고 배만 여전히 쪼록쪼록 고팠다. 이번에는 녀선생이 학생들을 데리고 가을을 하고난 밀밭에 가서 이삭을 줏도록 하였다. 선생은 밭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굉장히 많은 이삭을 주어왔다. 그 이삭을 털어서 빵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다. 학생들

은 그 빵을 먹으면서 <하느님>에게 기도를 드리는것보다는 실지 로동을 통해서 먹을것을 얻는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였다.》

운명을 개척하는 힘은 사람자신에게 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찾아내신 진리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길림육문중학교에 적을 두시고 투쟁에 나서시였을 당시 조선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실태는 한심하였다

민족해방운동을 한다고 하던 많은 사람들이 외세에 의존하여 독립을 이룩해보려고 망상하였다. 제가끔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국제당에 승인을 받으러 다니는가 하면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렬강들에 독립을 청원하러 다니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하였다.

대표적실례로 헤그밀사사건을 들수 있다.

헤그밀사사건이란 당시 조선의 황제였던 고종이 1907 년 6 월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진행된 제 2 차 만국평화 회의에 《을사 5 조약》의 비법성을 폭로할 목적밑에 조선대표단을 파견한 사건을 말한다.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1905 년 11 월 17 일 《을사 5 조약》이 날조됨으로써 조선은 외교권을 완전히 빼앗겼으며 조선의 내정은 사실상 일본《통감부》에 의해 좌우지

되게 되였다.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우에 놓이게 된 때에 리준, 리상설, 리위종 등 애국문화계몽운동을 벌려오던 우국지사들은 한가닥 희망을 걸고 기막힌 나라의 처지를 국제사회여론에 호소할것을 계획하였다. 그들은 제 2 차 만국평화회의를 좋은 계기로 여기게 되였으며 황제를 리용하여 이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활동하였다.

한편 황제 고종은 자기의 지배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만국평화회의에 환상을 가지고 리준 등을 이 회의에 비밀리에 참가시켜 《을사 5 조약》이 일제의 의하여 날조되였다는것을 폭로케 함으로써 외세의 동정을 얻어 일제에게 빼앗긴 국권을 회복해보려고 하였다.

리준을 비롯한 3 명의 우국지사들은 국왕의 밀서를 가지고 네데를란드의 헤그에 도착하여 만국평화회의에 조선대표로 참가하겠다는것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회의에 모여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일제를 적극 비호하면서 《을사 5 조약》에 의하여 조선외교는 일본이 대신하게 된 이상 조선대표는 인정할수 없다는 구실밑에 의장을 사촉하여 조선대표의 회의참가를 거절하게 하였다.

조선대표들은 이런 조건에서 온갖 가능성을 다 리용하여 일제의 강도적인 조선침략책동을 폭로규탄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리였다. 그들은 헤그에 있는 국제기자협회의 연단과 그곳에서 발간되고있던 각종 출판물들을 통하여 조선침략에서 일제가 저지른 범죄행위를 날날이 고발하고 그것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해줄것을 세계여론에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악랄한 방해공작과 각국 대표들의 랭담한 반응으로 하여 렬강들의 동정을 호소하는 밀사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걸음마다 좌절의 쓴맛을 보았다.

리준은 뒤늦게나마 미제를 비롯한 서방제국주의도 일제와 한짝이라는것을 깨닫고 원통함을 참을수 없어 배를 갈라 자결하는것으로 제국주의의 침략책동에 항거하였다. 헤그밀사사건은 일제의 조선침략에 제동을 걸지 못하였다.

일제는 이 사건앞에서 주춤거리거나 멈춰선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계기로 조선침략을 더욱 강화하는데로 나갔다. 밀사파견의 책임을 구실로 고종을 황제의 지위에서 밀어냈으며 《정미 7 조약》을 강요하여 조선의 내정권을 완전히 빼앗았다. 하여 망국의 위기는 더한층 심화되여갔다.

만국평화회의장을 붉게 물들인 리준의 피는 세계의 그 어떤 강대국도 조선의 독립을 선사하지 않는다는것과 남의 덕으로는 자기 운명을 구원하고 개척해나갈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경고해주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민족해방운동의 실태와 력사의 교훈을 꿰뚫어보시고 자기 운명을 구원하는 힘은

다름아닌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찾아내시였던것이다.

사람의 운명을 구원하는 힘은 사람자신에게 있다!

돌이켜보면 저 아득한 인류사의 첫 기슭에서부터 인간은 자기 운명을 개척해줄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갈망해왔다.

고대에짚트인들은 태양의 신전을 만들어놓고 대대로 태양신에 막대한 제물을 바쳤으며 마야족은 한번에 2 만여명의 노예들의 심장을 도려놓고 태양신에 행운을 빌었다고 한다.

인까족이 태양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살며 태양의 은혜를 더 많이 입기 위해 광활한 옥토도 버리고 3 400m나 되는 안데스산정에 올라 《태양의 도시》를 건설하였다는 설도 있다.

그런가 하면 피착취근로대중이 하느님이나 임금, 영웅에게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를 구원받으려는 기대를 걸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숙망은 오랜 세월 결코 실현될수 없었다.

그도 그럴것이 사람의 운명을 구원하는 힘은 다름아닌 자기자신에게 있었던것이다.

이에 대하여 좀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사람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데는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게 된

다. 또 그것들의 역할이 자못 중요하다. 실례로 사회개조에서 객관적조건, 이를테면 국제적환경이나 국내의 정치정세 등이 매우 중요하다.

례컨대 정보산업의 시대인 오늘날 사회경제발전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은 놀라울정도로 커지고있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지금 과학기술이 마치도 인간의 운명개척, 구체적으로는 사회변화와 발전에서 원동력으로 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이른바 《정보사회》론의가 바로 그것이다.

《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사회》를 정보설비가 물질적부의 생산과 사회생활의 기초로 되는 사회로 정의한다. 이들의 주장의 밑바닥에는 기술결정론이 놓여있다.

기술결정론에 의하면 기술이 사회적변화를 낳는 원동력이 된다. 기술은 이를 소유하거나 리용할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사이의 권력관계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기술결정론의 립장에서 그들은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그것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가고 있는 측면을 과장하면서 《산업사회》, 자본주의사회가 《과학기술혁명, 정보혁명》에 의해 《정보사회》로 변화되고있다고 한다.

과연 과학기술이 력사를 개척하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그리고 파급효과가 큰 원동력》으로 되는것인가?

이들이 주장하는것처럼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 결정

적요인이 과학기술인가?

과학기술을 사회발전, 운명개척의 원동력으로 보는 사람들은 중대한 착오를 범하였다. 그들은 한가지 사실을 잊고있다. 잊고있는지 아니면 우정 외면하는것인지.

정보기술을 비롯한 여러가지 물질기술적수단들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만들어낸것이며 사람의 조종에 의해서만 자기 역할을 수행할수 있다.

물론 과학기술은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아무리 발전된 최첨단기술수단이라고 해도 그것을 만들어내고 리용하는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사회관계를 변혁해나가는데서도 사람자신이 어떻게 준비되는가에 따라 불리한 객관적정세를 유리하게 전변시킬수도 있고 유리한 정세를 제대로 리용하지 못할수도 있다.

사람은 불리한 자연의 조건이나 사회적영향을 이겨내고 유리한 환경은 적극적으로 리용하면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해나가는것이다.

이렇게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물질기술적수단을 비롯한 그 어떤 객관적요인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

사람이 자연과 사회의 개조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은 곧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

다는것을 의미한다.

알고있는것처럼 사람의 운명은 세계를 개조하는 과정을 통하여 개척된다. 그런데 세계의 개조발전에서 사람이 결정적역할을 하는것만큼 세상에는 사람의 운명을 대신해서 개척해줄 그 어떤 힘도 없다.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다름아닌 사람자신에게 있다. 사람은 다만 제힘으로만 자기의 운명을 개척할수 있으며 그러한 힘을 가지고있다.

지금까지 운명의 주인은 사람자신이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신에게 있다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 원리가 바로 운명개척의 근본리치이며 여기에 주체사상의 진수가 있다. 주체사상의 다른 모든 원리와 내용은 이 원리에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을 구현하여 구체적으로 전개되고있다.

따라서 주체사상을 한마디로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원리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여 사람이 자연과 사회,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존재로 되는가를 계속하여 보기로 하자.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데 사람의 본질적 특성이 있다.》

김 정 일

3.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세계관의 견지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물질적존재에는 없고 오직 사람에게만 고유한 속성을 밝혀내는 문제이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는 세계관연구에서 력사를 두고 시종일관 론의되여왔다. 그 과정에 이러저러한 견해들이 많이 나왔지만 어느 한 견해도 사람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옳바로 해명하지 못하였다.

사람에 대한 완벽한 과학적해명은 마침내 주체사상에 의하여 주어지게 되였다.

1) 운명의 《문》을 여는 《열쇠》

고대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로 전해지는 소크라테스는 《너자신을 알라》는 표어를 즐겨 사용했다고 전해지고있다. 이 표어는 원래 그와 인연이 깊은 데르포이신궁의 대문에 걸려있었다고 한다.

《너자신을 알라》, 이 말을 자주 외운 소크라테스자신도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데 대하여 옳바른 해답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그러면 고대의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신궁의 대문을 열었을것인가.

데르포이신궁의 대문에 걸려있던 이 글이 오늘에 와서

도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하게 안겨오는것은 무엇때문일가.

사람에 대한 세계관적인 리해는 비유해 말하면 운명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볼수 있다.

각자가 사람의 본성에 대한 견해에 근거하여 자기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 하며 그 실현을 위한 방도도 찾아내게 된다.

삶을 꾸려나간다는것은 사람이 자기의 본성적인 요구(본성이란 사람자체의 특성, 성질을 말하며 본성적인 요구라고 할 때에는 물질적인 요구뿐아니라 정신문화적인 요구, 사회정치적측면에서의 요구 등을 말한다.)를 실현해나간다는것이다. 그런것만큼 누구나 사람의 본성에 대한 이러저러한 견해를 가지기 마련이며 거기에서 출발하여 삶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법이다.

실제로 인류력사는 수많은 《열쇠》들이 생겨나고 그에 따르는 각이한 운명의 《문》들이 열려진 과정이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인간의 운명개척사에는 어떤 《열쇠》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열려진 《문》뒤에서는 어떤 운명들이 펼쳐졌는가를 보기로 하자.

여기에서 수천년에 달하는 세계관발전의 력사를 일일이 다 렬거할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사람에 대한 견해들을 몇가지 부류로 묶어서 간단히 보기로 하자.

지난 시기에는 주로 사람을 정신적인 존재로 보는 견

해와 물질적존재 즉 자연적, 생물학적존재로 보는 견해가 지배하였다.

사람을 정신적인 존재로 보는것으로서 대표적으로 헤겔의 견해를 들수 있다.

튜링겐대학시절 《로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울만큼 동작이 느린 젊은이로서 졸업할 때 《신학은 할수 있으나 철학적재능은 없음》이라는 평정도 받았으나 놀랍게도 도이췰란드부르죠아철학계를 지배한 헤겔(1770-1831), 바로 그 헤겔은 세계를 《절대리념》, 《세계정신》의 자기 전개과정으로 본다. 그러면서 사람을 《절대리념》, 《세계정신》의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의 정신적발현으로 본다. 그는 《인간의 본질은 사유》라고 했다.

사람을 정신적인 존재로 보는 견해에는 이밖에 사람의 본성을 《생존의지》, 《권력의지》로 보는 견해도 있고 《신앙심》을 본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사람을 자연적, 생물학적존재로 보는 견해로서는 프로이드의 견해를 들수 있다.

프로이드(1856－1939)에 의하면 의식은 《잠재의식》에 복종하며 이 《잠재의식》은 내용상 《리비도(성욕)》이다. 의식은 《리비도》와 사회적환경간의 갈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 갈등은 유년초기시기에 시작되며 그 갈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인간의 운명도 숙명적으로 결정된다. 프로이드주의심리학은 사람의 심리를 포함한 모

든 정신활동뿐아니라 계급투쟁, 혁명 등과 같은 낡은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까지도 황당무계하게 《리비도》의 각이한 발현으로, 그것을 억제한 결과 생긴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설명한다.

사람을 정신적인 존재로 보거나 자연적, 생물학적존재로 보는 이러한 견해들은 계급적리해관계를 반영한 사회정치적성격을 띠고있었으며 력사적으로 심각한 론쟁이 벌어져왔다.

례컨대 사람을 본능에 의해 지배되는 존재로 보는 견해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변호에 리용되며 근로대중속에 부패와 타락을 부식시킨다는것은 가려보기 어렵지 않다.

사람은 순수 정신적존재도, 단순한 생물학적존재도 아니다.

사람은 사회적존재이다. 여기에 다른 생물학적존재와 구별되는 사람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

맑스주의는 사람의 본질을 사회관계의 총체로 규정하였다. 맑스는 1845 년에 발표한 《포이에르바흐에 관한 테제》에서 《사람의 본질은 … 사회관계의 총체》라고 쓰고있다.

이것은 사람이 사회적관계속에서 생활한다는것이며 사람의 속성이 사회적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는것이다.

그런데 이 견해는 사람자체가 가지고있는 본질적특성

에 대한 해명으로는 되지 못한다.

한편 지난 시기에 사람자체가 지니고있는 특성을 가지고 사람의 본질을 해명하려는 시도들도 있었다.

사람을 말하는 존재, 로동하는 존재, 사유하는 존재라는 식으로 규정한것들이 그 실례이다. 물론 이러한것들이 사람에게 특유한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사람의 본질적속성의 발현으로 되는 활동의 개별적인 측면을 가지고 론한것들이다. 따라서 그 견해들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과학적으로, 전면적으로 밝힌것이 못된다.

이처럼 선행한 사상들은 사람의 운명에 대해 이러저러하게 많이 론의하면서도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옳바로 밝히지 못하였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것을 바로 리해하지 못한데로부터 선행사상들은 사람들에게 운명의 길을 옳바로 밝혀줄수 없었다.

마침내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인간에게 참된 운명개척의 옳바른 길을 밝혀줄수 있는 열쇠가 마련되였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람에 대한 주체사상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2) 출발점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밝히는데서 사회적존재라는데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마지막단추까지 잘못채워지는 경우를 생활에서 종종 맞다들리게 된다.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할가.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론함에 있어서도 첫 출발을 어디에서 떼는가가 중요하다.

즉 사람을 자연적, 생물학적존재로 보는 관점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자체의 특성을 밝히는가 아니면 사회적존재라는데서 출발하는가에 문제해결의 성과여부가 달려있는것이다.

가령 사람을 단순히 자연적, 생물학적존재로만 보는 관점에 기초하여 사람의 본성을 해명한다고 하자.

그러면 사람의 본성을 생명물질일반이 가지고있는 본능적속성이 발전완성된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을 생명물질일반 특히 동물과 다름없이 리해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결국 사회적존재인 사람과 생명물질사이에 근본적인 계선이 모호해지며 이로부터 인종론과 같은 그릇된 견해에 떨어지게 된다.

인종론은 민족문화와 민족의 정신능력, 민족성이 인종

적소질에 의해 규정되며 사회적불평등도 인종적유전의 차이에 기초한다고 주장하는 반동적인 리론이다.

인종론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한 프랑스의 외교관인 고비노(프. 1816—1882)는 백인종을 《고등인종》으로, 유색인을 《렬등인종》으로 규정하고 응당 백인종이 유색인종을 지배해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이 리론이 그후 히틀러파시즘에게 복무하였으며 오늘도 인종차별정책을 실시하는 자들에게 복무하고있는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물론 사람은 다른 자연적, 생물학적존재들과 같은점도 가지고 있다. 례컨데 다른 모든 사물들이 그러한것처럼 사람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의 몸은 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무기염류, 더 구체적으로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를 비롯한 여러가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은 다른 사물에도 있다.

생명체의 견지에서 보아도 사람은 다른 생명체들과 같은 점을 가지고있는 동시에 다른 점을 가지고있다. 같은 점이란 실례로 사람도 다른 생명체들처럼 물질대사를 한다는것이다. 다른 점이란 사람이 동물에 비할바없이 발전된 뇌수를 가지고 있다거나 두발로 서서 걸어다니고 정교하게 움직이는 손을 가지고있다는것 등이다.

그런데 생물학적견지에서의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사람만이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는가를 알수 없다. 생물학적차이는 동물들사이에도 있다. 만약 생물학적

특성측면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동물도 그 발전정도에 따라 일정한 수준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할수 있는것으로 된다.

그러나 알려진것처럼 아무리 발달된 동물도 극히 낮은 수준에서조차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지 못한다.

사람이 원숭이나 류인원이 아닌 사람으로 되고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할수 있은것은 무엇때문인가. 다름아닌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살았기때문이다.

그런것만큼 그 어떤 물질적존재에도 없는, 사람만이 가지는 특수한 속성은 응당 사회적존재의 면에서 찾아야 한다.

바로 주체사상은 사람이 사회적존재라는것을 밝히고 그로부터 출발하여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해명하는데로 나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에 대한 철학적고찰에서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사회적존재라는데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이 사회적존재라는것은 사람이 사회관계를 맺고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살며 활동하는 존재라는것이다. 사회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한다는데 다른 모든 자연적존재, 생물학적존재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람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

물론 사람은 고도로 발전된 유기체를 가지고있지만 유기체가 아무리 발전되였다고 해도 사람이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지 않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존재로 발전할수 없었을것이다.

사람은 사회적관계속에서만 생존하고 발전할수 있는 존재이다.

구체적으로 보자.

사람이 살아가자면 우선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것은 사회적로동을 통하여서만 얻을수 있다. 왜냐하면 물질적부를 창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것 즉 지식, 기술, 경험, 로동도구 모든것이 사회적산물이기때문이다.

사람의 모든 자질과 능력도 사회적교육과 실천 즉 사회적관계속에서만 형성발전된다.

사람이 사회적으로만 존재하고 발전할수 있다는것은 사회적관계의 개조가 개인의 의사와 힘으로는 할수 없으며 사회적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세계에서 사회적존재는 오직 사람뿐이다.

물론 동물들가운데도 개미나 벌같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무리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집을 짓고 먹이활동을 하는것이 있다. 그러나 동물무리안의 관계는 생물학적진화과정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것으로서 본능에 의하여 맹목적으로 유지된다. 더우기 그것은 자연환경에 순응하기 위한

보조적수단으로 될뿐 사람처럼 주위세계의 구속을 이겨내기 위한 조건은 아니다.

특히 사회적관계는 사람들에 의하여 목적의식적으로 맺어지고 유지되며 변혁된다는데서 동물의 무리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질문이 제기될수 있다. 사람이 사회적존재라는 견해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비로소 제기된것이 아니지 않는가고.

물론 맑스주의창시자들도 사회적존재라는 개념을 썼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회적존재라는 말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사회적의식에 반영되는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과 경제적관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은 사회를 물질적인것과 정신적인것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사회의 물질적측면을 이루는것을 사회적존재라는 개념에, 사회의 정신적측면을 이루는것은 사회적의식이라는 개념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사회적존재가 사회적의식을 규정한다는 출발적원리를 정립하였던것이다.

맑스주의가 사람을 생산력의 구성요소로 보았던것만큼 맑스주의철학에서 사회적존재라는 개념에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사람은 유일한 사회적존재가 아니다. 즉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과 경제적관계속에 포함되여 그것들과 같은 위치에 놓인다.

이와는 달리 주체사상은 자연적존재와 구별하여 사회적존재라는 개념을 쓴다. 즉 사회적재부와 사회적관계는 사회적존재에 포함되지 않는것이다. 이 경우에 세계에서 사회적존재는 사람뿐이다. 즉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 사회적존재라고 한다.

바로 사회적존재인것으로 하여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라는 본질적특성을 가지게 되였다.

이제부터 그에 대하여 하나하나 보기로 하자.

3) 자유냐 예속이냐

《나의 슬픔을 노예살이와 바꾸지 않는다는것을 믿으라.》이것은 고대그리스의 작가 에스힐로스(B.C 525- B.C 456)가 쓴 비극작품에서 주인공 프로메테우스가 하는 말이다.

우리의 신 제우스의 명령을 받은 프로메테우스(고대그리스신화에서 사람들에게 불을 가져다준 인간의 《수호신》)와 에피메테우스형제가 땅우에 생물체들을 만들어놓았을 때 사람은 아무것도 지닌것이 없는 알몸이여서 추위에 떨고있었다. 동생과의 의논끝에 사람에게 불을 주기로 한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를 찾아가 사람에게 불을 주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제우스는 거절하였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동정하면서 제우스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하늘의 신들만이 쓰게끔 정해져있던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주었다. 이때로부터 인류에게는 문명한 생활을 할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이것을 알고 성이 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세계의 끝에 있는 가장 높은 바위산 꼭대기에 묶어놓고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자기가 한 일이 옳다고 생각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의 압박자이며 인류의 모든 불행의 근원인 제우스를 미워하면서 그 혹독한 징벌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제우스와 맞서 싸운다.

고대그리스인들이 신화를 만들어낸 때로부터 수천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사람들이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이야기에 애착을 가지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정말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주었기때문일가.

불의 발견이 인류의 문명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것은 인간자신이 발견하고 리용한것이지 결코 신화속의 프로메테우스가 가져다준것은 아니다.

하다면 무엇때문인가.

뭇신들이 찾아와 동정하며 무서운 우리의 신 제우스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머리를 숙이라고 타일렀을 때 그는 어떻게 웨치는가.

《우리의 신 제우스여, 네가 아무리 나를 괴롭히더라도

네가 몰락할 그날은 오고야 말리라. 오, 너는 죽어서 한줌의 재가 된 뒤에야 권력과 예속과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게 될것이다.》

자유냐 예속이냐. 두 길중에서 프로메테우스는 단호하게 자유의 길을 택한다.

바로 이것이다.

사람들은 프로메테우스의 형상에서 압제를 반대하고 온갖 신고를 이겨내면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불굴의 지향과 투쟁정신을 보고 찬양하는것이다.

사람은 일정한 자연적 및 사회적환경속에서 살아간다. 자연적 및 사회적환경은 인간생활의 필수적조건들이다. 그런데 일정한 력사적시기에 사는 사람들은 해당 사회발전수준에 의하여 조건지어지는 자연적 및 사회적예속과 구속을 받게 된다.

실례로 사람은 살아가는 과정에 가물과 홍수, 태풍과 지진과 같은 생명과 생활에 대한 위협과 파괴, 생활자료의 부족, 고된 로동 등과 같은 자연적구속을 받는다. 뿐만아니라 착취사회에서 사람은 계급적착취와 억압, 민족적지배와 예속을 받기도 한다.

자연과 사회의 이러한 구속과 예속은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 불리한것으로 작용한다.

사람은 이러한 외부세계의 온갖 구속과 예속을 그냥 감수하고 거기에 순응하는것이 아니라 증오하고 배격한다.

다른 생명물질들, 례컨대 동물은 외부세계와 자기를 자각하지 못하며 외부세계에 자기를 대립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그것들은 주위세계에 전적으로 종속되여있다.

그러나 사람은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 위하여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과 환경을 유리한것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벌린다.

또한 사회적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 위하여 민족적 및 계급적지배와 예속, 낡은 사상과 기술, 문화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린다.

이것은 주위세계에 종속되는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과 예속을 반대하고 자유롭게 살려는것이 사람의 고유한 특성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이러한 특성을 자주성이라고 정의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입니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 존재, 다른 모든 자연적존재와 구별되는 자주적인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것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과 예속을 반대하고 모든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나간다.

다른 생명물질은 외부세계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살아

간다. 그러므로 주위환경에 자기 개체를 적응시키지 못하면 사멸한다.

그러나 사람은 자주성으로 하여 주위세계를 자기에게 복무시키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사람은 자연을 자신에게 복무시켜나감으로써 생활수단을 풍족하게 생산하고 생활수준을 높여나간다. 또한 자기의 힘을 대신하고 증대시키는 로동수단들을 창조하고 더욱더 발전시킴으로써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며 로동을 즐겁고 흥겨운것으로 만들어나간다.

사람은 사회도 개변하여 그것이 집단생활, 공동생활에 더 잘 복무하도록 만들어나간다.

한 계급이나 민족에 의한 다른 계급이나 민족에 대한 정치적압박과 경제적착취를 반대하고 사회성원들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이 실현되는 사회적관계를 세우고 발전시켜나가며 새로운 사회적관계가 사람에게 더 잘 복무하도록 만들어나간다.

이처럼 온갖 구속과 예속을 반대할뿐아니라 자연과 사회를 자기에게 복무하도록 만들어나가려는것은 자연적존재와 구별되는 사람의 고유한 특성이다.

자주성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제일생명이라고 할만큼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을 말한다.

사람은 육체적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지고있다. 육체적생명이 생명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다.

사람의 사회정치적생명은 자주성을 가져야 유지된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고 남에게 예속되여있으면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로부터 자주성을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생명이라고 한다. 자주성이라는 개념은 흔히 사람의 근본특성을 규정짓는 개념으로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생명을 표현하는 사회정치적개념으로도 쓰인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란 자기 운명을 자체로 결정하고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특성을 말한다.

자주성은 사람의 생명인것과 마찬가지로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기도 하다. 이것은 자주성이 나라와 민족을 독자적인 사회적집단으로 존립할수 있게 하는 근본속성이고 나라와 민족의 공고발전을 이룩하고 추동하는 원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성을 리해함에 있어서 몇가지 바로 인식해야 할것이 있다.

우선 중요한것은 자주성을 사람의 몸에 내재하고있는 실체처럼 리해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자주성은 그 무슨 실체가 아니다.

사람이 자주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은 자주적요구를 가지

고 자주적인 활동을 하는데서 표현된다.

자주적요구란 그 어떤 지배와 예속도 받지 않고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를 말한다. 즉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유족한 물질생활을 누리면서 살려는 요구, 사회적예속에서 벗어나 사회의 평등한 성원으로 서로 돕고 화목하게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 그리고 온갖 그릇된 사상, 무지와 몽매에서 벗어나 고상하고 문명하며 아름다운 사상문화생활을 누리려는 요구를 말한다. 자주적요구는 집단의 자주적요구와 개인의 자주적요구로 제기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회적, 집단적존재이기때문이다.

집단의 자주적요구는 사회적집단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집단성원들의 공동의 요구이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살며 활동한다. 사람은 집단을 이루고서만 사회적인 간으로 될수 있다. 집단이 있고서야 개인도 있을수 있으며 집단이 발전하여야 개인의 운명도 개척될수 있다. 이로부터 집단의 매 성원들은 사회적집단이 더 잘 유지되고 발전해나갈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사회적집단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집단의 매 성원들이 가지는 공동의 요구를 집단의 자주적요구라고 한다.

개인의 자주적요구는 사회적집단의 평등한 성원으로서 가지는 요구이며 사회적집단을 위하여 이바지하는것으로 하여 응당 보장받을수 있는 요구이다.

개인의 자주적요구는 개인주의적탐욕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개인의 자주적요구는 사회적집단의 리익을 우위에 놓고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일치시키며 집단의 리익속에서 개인의 리익을 실현해나가려는 요구이다

그러나 개인주의적탐욕은 집단을 무시하고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대립시키며 집단의 리익우에 개인의 리익을 올려놓고 모든것을 개인의 리익에 복종시키려는 그릇된 요구이다. 그러므로 개인주의적탐욕은 개인의 자주적요구와 근본적으로 다른것이며 사람의 본성적요구와 아무런 인연도 없다.

집단의 자주적요구와 개인의 자주적요구는 집단주의를 통하여서만 가장 훌륭히 실현된다. 그것은 집단주의의 기본요구가 집단의 요구와 리익을 우선시하면서 매 개인에게 충분한 배려를 돌리는것이기때문이다. 집단주의만이 집단의 단합과 협력을 강화하고 집단의 모든 성원들의 창조적열의를 높이며 집단의 자주적요구와 개인의 자주적요구를 옳게 결합시켜 다 같이 원만히 실현해나갈수 있게 한다.

이처럼 자주적요구를 가지고 온갖 예속과 구속을 반대하며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이 바로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결국 사람의 삶이란 본질에 있어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자주성을 바로 리해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그것을

일부 부르죠아철학, 특히 실존주의계렬의 철학이 내세우는 개인의《자립성》이나 《의지의 자유》처럼 리해하면 안된다는것이다.

일련의 실존주의철학이 주장하는 개인의 《자립성》이니 《의지의 자유》니 하는것은 사람이 사회적환경의 모든 영향을 거부하고 순수 자의에 따라 제멋대로 결심하고 활동하는 부르죠아적방종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사회와 동떨어진 고립적인 개인, 아무런 사회적영향도 받지 않는 개인의 《자립성》과 《의지의 자유》는 관념속에서 환상으로만 존재할수 있는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본주의적사회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간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적영향을 받지 않는 개인의 《자립성》과 《의지의 자유》를 론하는것은 개인리기주의와 자유주의를 합리화하고 자본주의제도를 옹호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자주성과 자유의 호상관계도 잘 리해해야 한다.

자주성은 자유를 한 계기로 내포하고있는 사람의 성질이다.

원래 자주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된다는 뜻이다.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주인으로 된다는것은 그 어떤 구속도 받음이 없이 그것을 자기의 요구에 복종시키

고 자기의 리익에 맞게 처리할수 있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자유란 일반적으로 어떤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자주성의 발현으로서의 자주적인 생활이 그 어떤 예속과 구속도 허용하지 않는 생활이라는 점에서 자유와 공통성을 가진다.

그러나 자주성은 자유와 구별되는 특성도 가진다. 자주성이 사람의 본질적특성이라면 자유는 사람이 살아가는 상태이다. 사람이 자유롭게 살려는 특성을 가리켜 자주성이라고 부르는것이다.

자유냐 예속이냐, 누구나 자기 심장에 손을 얹고 이 물음에 대답해보자.

4) 과학기술을 통해 보는 인간의 모습

지금은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18세기에 제1차기술혁명이 발생한 후 인류는 제2차, 제3차의 기술혁명을 겪어왔지만 오늘처럼 과학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한 례는 일찌기 없었다.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인간의 생활면모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정보산업》라는 단어가 누구의 입에나 오르내릴정도로 과학기술이 사회정치, 경제발전과 매 개인의 생활의 구

석구석에 미치는 영향력이 극대화되고있다.

인간이 상상으로만 그려보았던 많은것들이 현실로 펼쳐지고 인류는 더더욱 빠른 속도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있다.

그러면 과학기술발전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파악하는것과 무슨 련관이 있는가.

사전에는 과학과 기술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되여있다.

《과학은 사물현상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지식의 체계이다. 기술은 과학의 법칙을 리용하여 사물현상을 개조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로동수단이라는 의미에서 차이난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것처럼 과학과 기술은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인간의 특성,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사람은 과학기술을 리용하여 주위세계의 사물현상가운데서 낡은것을 개조하고 새로운것을 만들어낸다.

주체사상은 주위세계의 사물현상들을 개조하고 새로운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특성을 창조성이라고 정의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입니다.》

사람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조성을 가진 존재, 창조적

인 사회적존재이다.

창조성은 자주성과 함께 사람의 본질적특성의 하나이다. 즉 자주성처럼 사람에게만 고유하고 다른 생명물질에는 전혀 없는것이다.

다른 생명물질, 례컨대 동물에게는 창조적특성이 전혀 없다. 아무리 발전된 동물이라고 하여도 사물을 개조하여 리용하는것은 없다.

동물도 벌처럼 자체의 분비물로 집을 짓거나 새처럼 풀이나 나무가지, 흙을 모아 둥지를 트는것과 같이 주위의 사물을 리용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드문하지만 이것은 창조라고 할수 없다.

왜냐하면 창조란 말그대로 새로운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인데 동물의 활동은 기성형태의 사물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내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 창조인것처럼 보이는 동물들의 이러저러한 활동이 그 방법에 있어서 조건과 환경이 변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구태의연하다는것이 이러한 사실을 확증해준다.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창조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활동방법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더욱 발전된다.

농사법을 보자.

인류력사의 초시기 주로 식물채집과 사냥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것으로써는 도저히 먹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게 되자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1만년전의 고대인류가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는 자료도 있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그 방법은 부단히 변하였으며 이제는 전통적인 농사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무토양재배방법까지 나왔다.

이처럼 사람만이 부단히 낡은것을 새로운것으로 바꾸어나간다.

사람은 단순히 낡은것을 새로운것으로 고칠뿐아니라 세상에 전혀 없던 새로운것을 만들어낸다.

나노과학기술의 발전과 리용이 그렇고 인류력사에 처음으로 세운 사회, 인간의 자주적본성에 맞는 사회주의사회의 출현이 바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여 사람만이 창조성을 가진 존재로 되는것인가.

그것은 사람만이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창조적능력이란 사람이 사회적실천과정에서 얻은 과학기술지식과 경험, 기능 등이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낡은것을 변혁하고 새로운것을 만들어내면서 자연과 사회를 더욱더 자기에게 쓸모있고 리로운것으로 개변시켜나갈수 있는 힘이 창조적능력이다.

사람은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주위세계에 있는 사물을 자기 생활상요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새로운것을 만들어 낼수 있다.

주위에는 고래나 코끼리처럼 사람보다 형편없이 덩지

가 크고 힘이 세며 범이나 사자처럼 사람에 비할바없이 날랜 동물들이 많지만 다름아닌 인간이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는것은 중요하게 창조적능력때문인것이다.

인간의 창조적능력가운데서 기본이 바로 과학기술이다.

현시기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는 하나의 축도로 되고있다.

오늘날의 과학기술발전을 살펴보면 정말 놀랍다.

자료에 의하면 히드론충돌형가속기의 가동시작, 화성탐지사기 《피닉스》호의 성과적착륙, 세계최초의 인공물들체개발, 알려지지 않은 행성들 발견, 눈에 보이지 않는 코트제작, 털코끼리의 게놈을 80%해득, 4600 년전의 무덤발굴 등이 2008 년의 10 대과학적성과라고 한다.

어느 한 나라의 잡지는 량자범위내에서 조작되는 기계장치의 설계, 합성생물학의 출현, 네안데르탈인(흐르바쯔까에서 발견된 약 4 만년전의 녀성)게놈측정, 새로운 히브예방약물의 개발, 엑손배렬측정에 의한 유전자갑작변이발견, 슈퍼콤퓨터를 리용한 단백질속의 원자의 운동관찰성공, 량자모의장치의 제작, 새로운 다음세대 게놈배렬측정기술의 발명, 리보핵산의 합성, 실험에서의 큰쥐리용기술의 발명 등을 2010 년의 10 대과학성과로 발표하였다.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제기한적이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증명되자면 아직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지 않겠는가, 세계에는 사멸되여가고있는 생명체들이 적지 않은데 사람도 그 어느때엔가는 그것들처럼 되지 않겠는가, 현재 사람이 정복한 주위세계의 령역이란 보잘것없고 우주는 무한하고 광대한데…

물론 이미 먼 옛날에 있던 많은 생명체가 사멸하였고 오늘도 없어져가고있는 생명체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동물은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지 못하고 창조하지 못하는것으로 하여 자연환경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은 가속적으로 무한히 발전하는 창조적능력을 지니고있는것으로 하여 세상에 나타난 후 멸망하지도 쇠퇴하지도 않고 계속 발전해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발전할것이다.

21 세기초에 원거리통신 및 전자공학분야의 기술을 개척하고있는 영국의 《브리티쉬 텔레콤뮤니케이션》회사 런던 지사 학자들은 현 세기에 이룩될 새로운 과학적발명들과 연구성과들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 2018 년에 가서 과학연구사업을 하는 인공《두뇌》가 출현할것이다.

- 2020 년에 홀로그람기술을 리용한 립체영상 TV 가 출현할것이다.

- 2025 년에 인간의 두뇌가 콤퓨터에 접속되며 《전자사회》가 이루어질것이다.

- 2030 년에 사람처럼 생기고 아인슈타인의 지능만한 두뇌를 가진 로보트가 출현할것이다.

- 2032 년에 미국회도서관에 있는 모든 문헌자료들이 각사탕크기만한 전자장치에 모두 입력될것이다.

- 2035 년에 나노기술을 도입한 치약이 나오게 되며 이에 따라 치약속의 분자크기만한 극소형로보트들이 이발에 생긴 이돌과 카리에스를 제거하게 될것이다.

- 2040 년에 열핵융합기술이 에네르기생산에 도입되여 전기값이 눅어질것이다.

- 2075 년에 가면 사람이 현재로부터 미래에로, 미래로부터 현재에로 이동할수 있는 등 시간상《장벽》을 없애는 방법이 개발될것이다.

- 2100 년에 가면 사람이 사망한 다음에도 그의 개성을 콤퓨터로 프로그람화하여 보존할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여 전자세계에서 영구히 재생하게 될것이다.

현대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인간은 창조적존재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더욱 과시하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할것이다.

5) 의식적인 사회적존재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과 함께 의식성을 가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

였다.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입니다.》

사람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인 동시에 의식적인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은 주위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며 또 그를 개조하기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벌리는데 사람의 활동의 매 순간순간, 계기마다에 일관되여있는것이 의식성이다. 앞에서 우리는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지고있다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는데 바로 의식성에 의하여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이 담보되며 그 합목적적인 인식활동, 실천활동이 보장된다.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사람은 우선 의식성으로 하여 주위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한다.

례를 들어 쇠돌에서 쇠를 뽑아내자면 쇠돌이 얼마만한 온도에서 녹는가를 알아내고 쇠돌에서 철성분을 어떻게 갈라내며 그것을 써야 할 용도에 따라 어떻게 다스릴것인가를 알아낸다.

사람은 또한 의식성으로 하여 자기 활동을 구상한다. 누구든지 자기 요구와 리해관계를 자각한데 기초하여 행동의 목적을 명백히 세우며 그 다음에는 자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한다. 사람이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언제나 생활상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쓸모있게 하겠는가를 생각하는것은 사람이 의식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사람은 또한 의식성으로 하여 변화되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자기 활동을 조절하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도록 자신을 통제한다.

물론 사람의 활동에도 생물학적측면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이 있다. 가령 먹는다든가 잔다든가 하는것은 생물학적인것, 본능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다. 그러나 사람은 의식성으로 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배고픔도 참고 모진 졸음도 이겨낼줄 안다. 그리고 전진도상에 어떤 난관이 제기되였을 때에는 그 극복방도를 찾아내며 용감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결국 사람은 의식성으로 하여 자신의 자주적요구를 깨닫고 그에 맞게 창조적활동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려나가게 되는것이다.

그러니 높은 의식성을 발휘할 때 우리의 모든 활동이 보다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의식성은 자주성, 창조성과 같이 사람에게만 고유한것이다.

동물에게는 의식성이 없다. 물론 동물도 살며 활동하는데 그것은 다만 생물학적본능에 따르는것이다. 먹고 자는것, 사나운 적수와 맞다들면 달아나는것, 거미가 벌레를

잡기 위해 거미줄을 치며 새가 둥지를 트는것 등은 다 생물학적본능에 따라 하는 행동이다.

동물은 사물현상을 파악하지 못하며 그 리치를 알아내지 못한다. 따라서 그것을 개조할수 없고 더우기 변화되는 정황에 맞게 자신을 조절통제하지 못한다.

오직 사람만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조절통제한다.

사람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조절통제할수 있는것은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의식은 사람의 육체적기관가운데서도 가장 발달된 뇌수의 고급한 기능이다. 사람의 뇌수는 생명활동에서 중추의 역할을 하며 뇌수의 기능인 의식은 사람의 모든 활동을 지휘한다.

의식은 내용적으로 보면 사상의식과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도 사상의식은 사람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음으로 하여 사람의 활동을 직접 규제하고 조절통제한다.

이처럼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활동을 조절통제하는 사람의 성질이 바로 의식성이다.

의식이 어떤것인가를 리해하기 위해서, 왜 그것이 사람에게만 고유하다고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동물의 본능에 대하여 좀 보기로 하자.

동물의 본능은 매우 복잡한것으로서 일부 동물의 경우에 얼핏 보면 비상히 목적의식적인것같은 인상을 준다. 하

지만 그것은 고정적인 조건에서만 오유를 범하지 않을뿐이지 조건이 변하면 곧 기계적으로 나타나 오유를 범한다. 명백히 동물의 행동은 본능에 따른것이며 여기에 의식적인 계기는 없다. 동물의 행위는 어떤것이든지간에 그 생존의 일정한 조건에 오랜 기간 적응해온 결과로서 외부환경조건의 영향에 대한 선천적이며 무의식적인 반응인것이다.

의식성을 리해함에 있어서 그것이 자주성, 창조성과 함께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는 속성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다.

사상의식과 지식을 가지고 자기 행동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벌려나가는 사람의 속성은 결코 유전적으로 선대에게서 물려받는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람이 교육과 사회적실천과정을 통하여서만 이러저러한 사상과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할수 있다는것을 생각해보면 더 론의할 여지없이 명백하게 알수 있다.

이미 연구된바와 같이 사람의 육체적기관들자체가 사회적협력과정에 오늘과 같이 완성되였다. 사람의 뇌수의 발달은 사회적로동과정에 비로소 가능해졌다.

즉 의식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된것, 사회가 준 속성이다.

마찬가지로 자주성, 창조성도 사회력사적으로만 형성되고 발전되는 사회적속성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론의된것을 하나로 묶어보자.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적존재인 사람만이 가지고있는 특수한 속성이다. 세상에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 리유는 명백하다. 사회를 이루고 사는 존재가 사람밖에 없기때문이다.

바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인것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발전시켜나가게 되는것이다. 나아가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자기 운명을 자기 손으로 개척해나가는 힘있는 존재로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인간을 세계의 주인의 자리에 놓고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을 확립하시였습니다.》

김 정 일

4. 사람을 중심으로 보고 대하는 세계

앞에서 우리는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데 대하여 보았다.

이제부터는 세계에 대한 견해, 관점과 립장에 대하여 보게 된다.

세계에 대한 견해란 전체로서의 세계가 어떻게 되여있고 어떻게 변화발전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며 관점과 립장이란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는데서 어떤 태도를 취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세계의 주인의 자리에 놓고 세계에 대한 견해, 관점과 립장을 밝혀준다.

그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갈라볼수 있다. 그 하나는 세계에 대한 사람중심의 견해이며 다른 하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하나하나 이야기해보자.

1)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

사람은 세계속에서 삶을 꾸려간다. 이것은 사람이 항상 자연과 사회의 그 무엇인가를 보고 일정한 견해를 가지며 어떤 태도를 표명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개별적인 사물현상에 대한 사람의 견해와 태도는 항상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견해와 관점을 전제로 한다.(이에 대하여서는 1장 1절《인생의 등대》를 참고)

따라서 사람이 무엇이든 바로 보고 대처해나가자면 우선 주위세계에 대한 세계관적인 견해와 관점을 바로 가져야 하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밝힌데 기초하여 세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밝힌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입니다.》

독자들은 혹시 이런것을 생각해본 일이 있는지.

세상에 지배와 개조라는 말이 언제 생겨났을가. 얼핏보면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별로 뜨이지 않는 단어여서 흥미가 없을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두 단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있다. 그것은 사람자신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다.

지배와 개조라는 표현이 언제 생겨났다고 딱히 시간적으로 찍을수는 없다. 하지만 사람이 이 세상에 생겨나서부터 쓰이게 되였다는것은 명백하다.

지구상에 사람이 태여나기 이전의 세계라면 자연만을 의미한다. 자연에는 발전단계가 다르고 구조와 기능에서 구별되는 천태만상의 사물현상들이 서로 호상작용하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살펴보면 그것이 자연발생적인것이고 맹목적으로 작용한다는것을 알수있다. 여기에서는 어떤것이 다른 그 무엇에 복종한다거나 그 무엇을 목적의식적으로 고쳐나간다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다.

그러나 사람이 출현하면서부터 사정은 달라졌다. 사람은 주위세계와 자연발생적이고 맹목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동적이고 목적의식적인 관계를 맺고있다. 이러한 관계를 담고있는 개념이 바로 지배와 개조이다.

즉 오늘의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 달리 말하면 자연과 사회는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에 의하여 사람을 위한 세계로 되여나간다.

우선 자연을 보자.

사람은 자연속에서 살며 자연의 다양한 사물현상과 밀접한 련관을 맺고있다. 사람은 자연을 떠나 한순간도 살수 없으며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사람은 자연의 예속물이 아니다. 사람은 주위세계의 다양한 사물현상들을 통제하고 리용하면서 살아나간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연을 지배하고 개조해나간다.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벼락, 태풍을 비롯하여 사람의 생존과 발전에 큰 피해를 주던 사물현상들과 맹목적인 힘의 파괴적인 작용이 억제되고 극복되여나간다. 또한 사

람에 의하여 야생동식물이 집짐승과 농작물로 전환되고 광물이 채굴리용되는것을 비롯하여 사람에게 복무하지 않던 자연의 사물현상들이 사람의 생산수단과 생활재료로 리용된다.

자연뿐아니라 사회도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

그것은 사람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사회관계가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사람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사회관계로 전환되여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데서 표현된다.

사람은 사회관계를 떠나서는 생존할수도 발전할수도 없다. 사회관계의 형성과 발전은 사람들의 주관적의사와 관계없이 객관적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 법칙을 인식하고 지배하지 못하는동안 사회는 사람의 자주성실현을 이러저러하게 저애하게 된다.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발전하는데 맞게 사회적관계는 끊임없이 개선되여왔다.

노예사회로부터 봉건사회에로,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사회에로, 자본주의사회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이 이것을 보여주고있다.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됨으로써 사람들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관리하고 주동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게 되였다.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되는것은 두말할것이 없이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지닌 사회적 존재이기때문이다.

자체의 합법칙성에 따라 맹목적으로 운동변화발전하던 세계는 사람이 출현함으로써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발전하는 세계로 그 면모가 달라지게 되였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자체가 물질로 이루어져있고 자기의 고유한 법칙에 따라 운동하고 변화발전한다는 사정도 무시할수 없다.

만일 세계가 우연적으로 제멋대로 운동한다면 사람은 결코 세계를 인식할수 없고 따라서 사람이 그것을 지배하고 개조할수 없다. 세계는 우연적으로, 무질서하게가 아니라 고유한 법칙에 의하여 변화발전한다. 그런것만큼 사람은 객관적법칙을 인식하고 그것을 조절통제하고 개조할수 있는것이다.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 견해를 가지는데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류의하여야 한다.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된다는것은 세계가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것이 아니다. 세계는 사람이 생겨나기이전부터 존재해왔다. 세계는 결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창조된것은 아니다.

한편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개조된다는것은 세계의 모든 변화가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것이 아니다.

자연은 사람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부터 자체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 변화발전하여왔고 그 과정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 사회관계는 사람들의 주관적욕망에 따라 제멋대로

만들어진것이 아니며 그 어떤 약속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은 더욱 아니다. 다만 사람은 이 운동법칙을 알아내고 그것을 리용함으로써 세계를 개조하고 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지금 이 시각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위세계의 사물현상들을 자기 요구에 맞게 고치거나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어내고있다. 새로운 도시가 일떠서고 새 유전이 개발되며 산과 강들의 모습이 날마다 달라지고있다. 새로운 법들이 나오고 사회관계가 개선되여나간다.

세계는 시간마다 날마다 사람에 의하여 더욱더 지배되고 개조되여나가고있다.

2) 사람중심의 가치관

우리는 흔히 같은 지식이 사람에 따라 나쁘게도 리용되고 좋게도 리용되는것을 볼수 있으며 한 사회현상을 놓고도 사람들이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지는것을 목격할수 있다.

실례로 원자력기술은 사람들의 문명한 생활을 위한데가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대량살륙무기를 만드는데 먼저 도용되여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의 참사를 가져왔다.

이것은 현실세계를 대하는 사람들의 관점과 립장이 다른 결과이다.

사람들의 행동방향과 원칙을 결정하는것은 주위세계를

대하는 그들의 가장 일반적인 관점과 립장이다.

그런것만큼 사람이 참된 삶을 개척해나가자면 세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바로 가져야 한다.

그러면 어떤 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하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한다는것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한다는것입니다.

사람은 세계의 주인인것만큼 마땅히 사람의 리익의 견지에서 세계를 대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이 밝힌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한다는것은 우선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중심의 가치관을 가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물현상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어떤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언제나 사람에게 리로운가, 해로운가 하는 견지에서 처리해나가는것이 바로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것이다.

사람은 세계의 주인인것만큼 마땅히 사람의 리익의 견지에서 세계를 대하여야 한다.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것은 세계의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세

계에는 사람의 리익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세계의 모든 사물은 오직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한에서만 가치를 가지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게 하는 견지에서 세계를 대하는것은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관점과 립장이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 사람의 모든 활동이 리해관계에 따라 진행되는데 해로운 일을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구태여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고 할수도 있다.

문제는 사람의 리익에 대하여 어떻게 보는가 하는것인데 주체사상에서 내세우는 사람의 리익은 사회적집단과 동떨어진 개인적리익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집단적존재인 사람의 리익이다. 또한 개인적치부욕이나 출세욕같은 사리사욕이 아니라 자연의 구속과 사회적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가려는 사회적인간의 리익이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가, 그것은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착취와 억압을 제도화하고있는 사회, 자본주의사회가 존재하기때문이다. 또한 착취계급과 개인리기주의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이다. 개별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물현상을 대할 때 반드시 자기의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그 리해관계는 사람들이 처한 사회계급적처지에 따라 달라지는것이다.

침략전쟁, 군비경쟁, 가깝게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매일매시각 벌어지는 온갖 범죄들을 저지르는 자들의 《리

익》을 사람의 리익이라고 할수 없다.

미국식생활양식을 대변하고있는 《실용주의》를 보라. 개인의 동물적향락과 치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행동하는것이 《리익》으로 된다는것이 실용주의이다. 이것이 오늘 미국사회에 범람하는 온갖 범죄와 패륜패덕의 기초에 놓여있다.

이런것들을 과연 사람의 리익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결국 계급사회의 조건에서는 착취계급의 리익이 아니라 근로대중의 리익이 진정 사람의 리익인것이다.

이 세상에 초계급적인 《리익》이란 없다. 이전 쏘련의 고르바쵸브가 들고나왔던 《전인류적가치》라는것을 상기해 보라. 력사적사실이 보여주는것처럼 계급적리익을 떠난 《전인류적가치》란 수억만 사회주의적근로자들의 리익을 해치고 자본주의복귀를 추구하기 위한 간판이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나 금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있지만 주체사상은 돈이나 금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한에서만 가치를 가지는것이라고 본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중요한것은 우선 사람의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 사물현상의 가치를 평가하는것이다. 즉 사람중심의 가치관을 가지는것이다.

가치평가는 사람의 모든 행동에 앞서 반드시 진행하게 되는 필수적전제이다. 사람은 해당 사물현상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다음 그로부터 출발하여 행동을 벌리게 된다. 다시말하여 그 사물현상에 대한 자기 태도를 결정하고 행동에로 넘어간다.

자본주의세계에서는 모든 사물의 가치뿐아니라 사람의 인격까지도 오직 돈을 자로 하여 재고있다.

그것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

2008 년 6 월 13 일부 조선의 《로동신문》에는 《인간의 생명이 황금의 희생물로 되는 부패한 사회》라는 제목으로 이런 기사가 실렸다.

《얼마전 일본 오사까부의 히가오사까시에서 있은 일이다. 번잡한 시의 거리를 누비며 한대의 구급차가 어느 한 병원의 구내에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차에는 방금전에 교통사고로 심한 부상을 당한 환자가 실려있었다. …

죽음의 문턱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있는 환자를 <료해> 하고난 병원 원장이라는 사람은 자기 병원에는 의사가 모자란다며 단마디로 치료를 거절하였던것이다. …

…어디서도 환자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환자가 돈이 없기때문이였다. 구급환자는 끝내 치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저주로운 세상을 원망하며 숨졌다. 일본에서 이런 비극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

돈중심의 가치관은 사람들을 타락시켜 사람다운 도덕

과 인정이란 전혀 없는 야수로 만든것이다.

반대로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을 보라.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조선에서는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다.

조선에서 전반적무상치료제는 원쑤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한 전쟁을 겪고있던 1953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였다.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새 사회건설에 철저히 구현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돈으로 인간생명을 롱락하는 자본주의적악덕이 조선에서는 이미 1950년대에 영원히 청산되였다.

조선에서 전반적무상치료제는 대포로 참새를 쏘고 황금으로 제방을 쌓는 격이 되더라도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어떤 수지타산도 앞세우지 않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끊임없이 발전하여왔으며 지금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 높은 단계에로 완성되여나가고있다.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속에서 조선인민은 모든 의료혜택을 국가로부터 완전하게 무상으로 보장받고있다. 국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찰비, 실험검사비, 약값, 입원치료비 등 모든 진단치료비와 료양비, 료양소에 오고가는 려비, 건강검진과 상담, 예방접종 등 예방을 위한 의료봉사비,

교정기구까지 다 무상으로 보장하여 주고있다.

조선의 무상치료제야말로 사람의 리익을 기본으로 보는 관점과 립장의 빛나는 구현으로 된다.

이처럼 가치평가의 기준은 오직 사람의 리익으로 삼아야 한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자면 또한 사람의 활동의 전 과정을 사람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복종시켜야 한다.

이것은 목적을 세우고 대상을 규정하며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등 행동의 모든 계기에서 철저히 사람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이 원칙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례컨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오직 저 혼자 잘 먹고 사는것만이 삶의 목적으로 된다면 결과가 어떠할것인가. 동물적인 육체적요구의 만족이라는것밖에 차례질것이 없다.

저명한 학자들인 큐리부부를 상기해보자. 그들은 자기의 연구활동에서 철저히 자기들 개인의 치부와 향락이 아니라 인류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하기에 고심참담한 연구끝에 폴로니움과 라디움을 발견하고 그 분리기술을 알아내고도 그것을 리용하여 돈벌이를 한것이 아니라 전인류를 위하여 연구성과를 공개하였다. 이들처럼 행동의 목적을 자기 개인의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리익을 옹호하는데 두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사람의 리익에 맞게 정하고 행동의 결과를 총화하는데서도 사람의 리익을 옹호하는데 이바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원칙으로 놓아야 한다.

오늘 요란히 번쩍거리는 자본주의의 《물질적번영》은 자국내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 그리고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식민지적략탈을 수단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이 아무리 《눈부신것》이라고 한들 그것이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는데야 근로대중에게 좋은 결과일리 만무하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 결과에 있어서 자본주의의《물질적번영》은 사람의 리익을 옹호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이라고 볼수 없다.

현시기 많은 나라들이 사회경제적번영을 지향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략탈이나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를 수단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려는 사람의 본성적리익에 배치되는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발전은 철저히 사람의 리익을 옹호하는 원칙에서 이루어지고 평가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3)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사업에서, 생활에서 자기 삶의 리상이 실현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나 그 행복을 성취하려는 사람들의 태도와 립장은 꼭 같지 않다.

우리는 때로 생활에서 행운이 차례지기를 바라며 노력은 하지 않고 공짜로 좋은 결실을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래서는 운명을 제대로 개척해나갈수 없다.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우연에 기대를 걸고 앉아 기다리는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서는 행복을 찾을수 없고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할수 없다.

행복을 찾고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하려면 과연 어떤 자세와 립장을 가져야 하는가.

주체사상은 이에 대해서도 옳바른 해명을 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한다는것은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다는것입니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다는것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사람의 주동적이

고 적극적인 활동을 기본으로 보고 거기에 의거한다는것을 말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잘 리해가 가지 않을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자.

주위세계의 운동변화는 자체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 진행되는것이고 거기에는 그 무슨 목적이 없다. 세계의 맹목적인 운동변화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생활환경을 펼쳐놓기도 하지만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세계는 저절로 사람에게 리롭게 변할수 없으며 객관세계의 변화발전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는 언제가도 사람의 요구와 리익이 실현될수 없다. 사람은 자신의 활동으로써만 물질세계의 불리한 영향을 억제하고 유리한 조건의 작용에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주위세계를 사람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변하게 된다.

한편 세계를 개조해나가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물질기술적수단들이 참가하며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조건이 영향을 미친다. 로동도구와 기계설비, 선전수단, 폭력수단 같은 물질기술적수단들과 여러가지 사회적조건은 그 역할이 자못 크다.

그러나 물질기술적수단만 있으면 자연과 사회가 저절로 개변되는것은 아니며 그 위력이 어떻게 발휘되는가는 사람의 역할에 달려있다. 또 사회적환경이 좋으면 주위세계를 개조해나가는데서 유리한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

것이 좋다고 해도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것이 큰 은을 낼수 없다.

사람의 역할에 모든것이 달려있다. 따라서 객관적조건, 물질기술적수단보다 사람자신의 역할을 중시하며 그 역할을 높여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처럼 자신의 적극적노력으로 삶의 리상과 목적을 실현하려는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립장을 가져야 행복을 이룩할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주위세계의 우연적영향이나 객관적조건에 기대를 걸것이 아니라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위세계를 자신에게 리롭게 개변시켜나가려는 태도를 가지는것, 이것이 사람의 활동의 견지에서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우선 사람자신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을 모든 사업의 첫 공정으로 삼아야 한다.

조선의 경우를 보자.

20 세기 40 년대 일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갓 해방되였을 때 조선에는 대학졸업생이 손에 꼽힐 정도로 교육실태가 한심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갓 수립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첫 의정으로 연필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도록 하시였으며 건국초기 자금이 그토록 긴장했음에도 불

구하고 종합대학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였다. 나라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전쟁시기에는 대학생들을 전선에서 소환하여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시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그후에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시종일관 교육사업을 앞세우고 커다란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2012 년 조선에서는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제를 실시할데 대한 새로운 법령이 채택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이것은 사람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을 모든 사업의 첫 공정으로 삼을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당과 국가의 활동에서 변함없이 훌륭히 구현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

오늘 조선에서는 200 만이 넘는 지식인대군이 마련되여 나라의 발전을 힘있게 떠밀고있다.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담당자, 결정적인 요인인 사람의 모든 활동은 그 준비정도에 따른다. 사람자체가 준비되지 않고서는 어떤 사업도 제대로 진행될수 없다. 따라서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에 앞서 사람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을 첫 공정으로 삼아야 한다.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에서 사람자신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을 모든 사업의 첫 공정으로 삼을뿐아니라 나서

는 문제를 사람들의 창조적역할을 높여 풀어나가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모든 사회적운동이 그러하지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활동에는 두가지 요인, 주체적요인과 객관적요인이 작용한다. 즉 그 나라 사람들자신의 역할과 경제적, 지리적조건을 비롯한 객관적요인의 역할이 여기에서 무엇에 의거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겠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얻는데서도 조선의 과학기술발전성과는 주목할만하다. 물질적조건으로 보면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렵다. 하지만 그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려는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고 심분투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최첨단수준으로 올려세웠다.

100%자체의 힘, 자기 기술로 인공지구위성《광명성-1》호 에 이어《광명성-2》호를 단번에 쏘아올렸다. 2012년에는 또다시 실용위성《광명성-3》호 2 호기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자기 조국을 당당한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올려세웠다.

인민대중의 열의와 창조적능력을 비상히 높여 현재 조선은 사회주의강성국가에로 비약하고있다.

물론 제기되는 문제를 사람자신의 역할을 높여 풀어나간다는것은 객관적, 물질적조건을 아예 무시한다는것이 아니다.

앞에서도 쓴바 있지만 물질적조건이 큰 작용을 하며 그 영향을 무시할수 없다. 특히 물질적조건이 좋으면 더없이 유리하다.

하지만 전적으로 그에 매달리면 안될뿐더러 사람자신의 역할을 높이지 못하면 아무리 객관적조건이 유리해도 쓸데 없다.

사람의 역할과 객관적인 물질적조건의 영향, 이 둘중 사람의 역할을 기본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참된 삶의 길을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행복을 찾을수 있다.

주체사상은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집필: 김성권

낸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인쇄: 주체 103(2014)년 2 월 15 일

발행: 주체 103(2014)년 2 월 25 일

ㄱ-35166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

http://www.naenara.com.kp

조선 · 평양

주체103(2014)년